

밀레니얼세대 패션트렌드 & 예술도시 자료조사

| 밀레니얼세대 패션트렌드

1) 밀레니얼 세대, 패션 대세는 '레트로'

큰 로고, 화려한 배색 등이 특징, 촌스러운 듯 스타일리시한 감성으로 인기 몰이
티몬에서 가장 크게 매출 오른 상품, 버킷햇(328%↑)과 힙색(174%↑)

- 1월부터 10월까지 패션 상품 매출 분석결과, 힙색, 벙거지모자, 어글리슈즈, 빅로고티 등 90년대 감성이 묻어나는 레트로 패션 아이템 지난해 대비 매출 급증
-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는 럭셔리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는 것을 오히려 촌스럽게 여기며, 올드하지만 독특한 레트로 패션으로 유니크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을 선호

<http://www.issue-m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20>



| 밀레니얼세대 패션트렌드

2) 신세계 강남점 3개월마다 패션 MD 바꾸니, 젊은 손님들로 '복적'

2030 세대 발길 붙잡는 '스타일 바자' 흥행
오픈 한달 만에 목표 매출 대비 200% 초과

- 신세계 강남점 5층 여성 캐주얼 매장을 리뉴얼 하면서 3개월 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는 '패션 팝업 장터' 선보임
- 스타일바자는 기존 편집샵과 달리 아이템만 선별해서 보여주는것이 아닌, 신진 디자이너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이 차별점
- 판매처가 온라인 뿐이었던 브랜드를 오프라인에 처음 소개하는 장점

[인기있는 브랜드]

엔오르 / 마조 팩토리 / 윙블링 / 분홍코끼리 / 조셉 앤 스테이시 /

<http://www.newsway.co.kr/news/view?tp=1&ud=2018101615442889557>



| 밀레니얼세대 패션트렌드

3) 레트로 열풍, 주인은 누구십니까?

패션계는 한마디로 힙트로, 뉴트로, 영트로
코듀로이, 체크 그리고 호피

- 밀레니얼 & Z세대에게 사랑받는 레트로패션
- 힙(hip) + 레트로 = 힙트로, 젊은이(young) + 레트로 = 영트로, 새롭다(new) + 레트로 = 뉴트로
- 최근 11번가 사이트 내 ‘호피’아이템 검색 횟수 15배 이상 급증
- 숏패딩과 빅로고의 재등판
- 음료, 리빙제품도 레트로가 유행하는 등 시대보다 옛 감성 공유

http://bravo.etoday.co.kr/view/atc_view.php?varAtcId=9133



| 밀레니얼세대 패션트렌드

4) 롱, 솃, 야상, 경량 진화하는 스타일 '패딩 열전'

솃패딩이 패션업계 화두

- 복고바람, 풍성한 볼륨, 짧은 기장, 우수한 활동성이 장점인 솃패딩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
- 눈에 띄는 원색계열에 소매그리픽 & 등판 빅로고등 트렌디한 실루엣으로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함을 강조

<http://www.slist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9212#09Pr>



| 밀레니얼세대 패션트렌드

5) ‘엘레쎬’ 헤리티지 아이템 인기 전년비 150% 증가

글로벌 패션 트렌드인 레트로 무드와 유러피안 오리진에 대한 접목 → 1020세대에게 좋은 반응

- 하반기에 스포츠 멀티숍 JD스포츠 / 원더플레이스 / 에이랜드 / 바인드 등 멀티 스토어의 적극적인 입점으로 유통채널 다변화전략 성공적
- 고객 접점을 오프라인 외에 무신사, 스타일 쉐어 등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채널까지 확장한 것이 젊은 층에 어필
- ‘엘레쎬가 올드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아닌 트렌드로 대두되는 브랜드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는 중’

http://www.fashionn.com/board/read_new.php?table=1006&number=26441



| 밀레니얼세대 패션트렌드

6) 티셔츠의 반란, ‘원마일 웨어’는 옛말

동네 패션 취급을 받던 티셔츠가 패션의 중심

‘수트에는 셔츠’라는 공식을 깨고 포멀룩의 중심인 비즈니스 룩까지 침투

- Z세대, 밀레니얼, 제니얼 세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층이 형성되면서 티셔츠를 활용한 스타일링이 힙(hip)한 것으로 인식되는 중
- 티셔츠에는 그래픽과 로고를 활용한 젊은 감각의 상품 증가
- 분더샵은 2030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해 햄버거, 핫도그 등의 캐릭터디자인을 접목시킨 세이크썬과 콜라보
- 게스 X 동화제약 ‘부채표 활명수’ 콜라보 티셔츠가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감

<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8&no=502405>



| 밀레니얼세대 패션트렌드

7) '못생기니 관심받네' 고프코어(gorpcore) 패션이 대세 (2018.04)

촌스러움이 멋스러움으로 평가받는 '어글리 프리티' 시대

- 고프(gorp)는 야외 활동, 캠핑 갈때 먹는 견과류 간식을 통칭하는 말이지만, 아웃도어 의류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임
- 고프고어는 기본적으로 바람막이 점퍼, 재킷, 등산복, 우비 등 야외 활동 용품을 엉뚱한 방식으로 활용한데서 출발
- 조화로운 색감, 실루엣, 세련미 등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'의도된 부조리' 연출
-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스타일의 롬코어에 복고무드가 더해져 촌스럽고 오래돼 보이는 아이템을 '무심하게' 입는 고프고어가 완성

<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8&no=215014>



| 예술도시

1) 스위스 - 바젤

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'아트 바젤'이 열리는 도시

- '아트바젤'은 25개국 290개 갤러리 & 4,000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
- 2015년 온스타일 프로그램 '살아보니어때' 촬영지
-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가 모여있는 예술의 도시
(쿤스트 뮤지엄 /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 / 샤울라거 미술관 /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)

<https://blog.naver.com/spacenowave/221296586033>



| 예술도시

2) 미국 - 브루클린

가난한 예술가의 터전에서 이제 예술가와 힙스터들의 도시, 이제는 뉴욕에 사는 2030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

- 과거 칙칙한주택형 아파트, 잘게 부서진 콘크리트 도로 등 빈민가의 모습에서 빠른속도로 가치가 오르는 중
- 과거 맨해튼이 너무 비싸 강건나 덤보에 터전을 잡았던 예술가들은 윌리엄스 버그로, 다시 브루클린으로 이동
- 브루클린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래피티

<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16856182&memberNo=16125332&vType=VERTICAL>



| 예술도시

3) 프랑스 - 에트르타 & 옹플뢰르

인상파 화가들이 사랑한 해안절벽 & 항구도시

[에트르타]

대표적인 인상파 화가 모네도 이곳에서 '에트르타의 거친 바다' 작품 완성

[옹플뢰르]

아기자기한 도시 풍경과 작은 배들이 웅기종기 모인 모습이 아름다운 항구, 모네 외 수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어간 곳

<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10356531&memberNo=468034&vType=VERTICAL>



4) 헝가리 - 센텐드레

헝가리 도나우 강변의 예술인 도시로

-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교에 있는 도시로, 천 년의 역사가 흐르는 고도로 사적과 문화유산이 많고, 17-18세기의 건축물로 도시전체 예술미 多
- 1920년대,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시골 마을로 숨어 들어온 예술가들이 만든 도시
- 토요일마다 예뉴 둠차 거리에서 예술시장이 열림

http://bravo.etoday.co.kr/view/atc_view.php?varAtcId=706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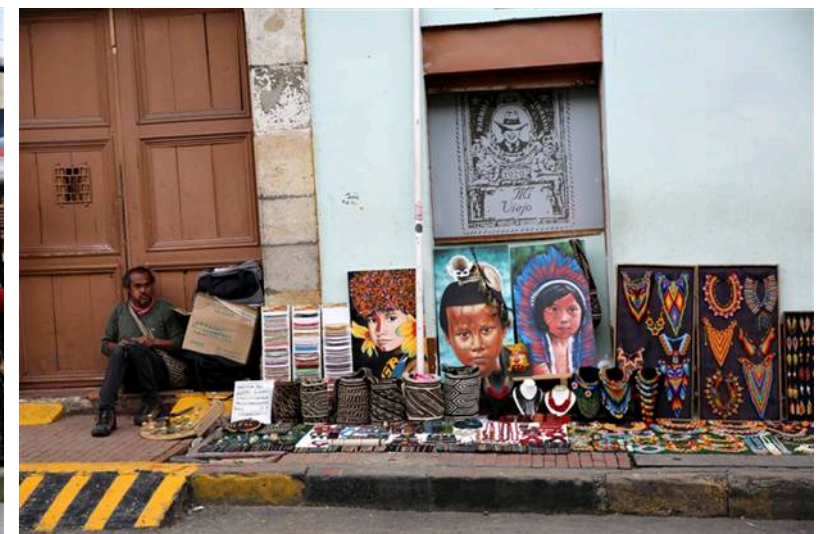


5) 콜롬비아 - 라칸델라리아

보고타의 구시가지이자, 콜롬비아 예술의 도시

- 골목골목 벽화가 그려져있고, 길가에는 커피상인들의 커피향과 길거리 공연의 음악을 즐기며 사람들이 둘러서있는 도시
- 보테로 미술관 / 황금 박물관 등 볼거리 많음

<https://blog.naver.com/rose0626/221195564083>



| 예술도시

6) 멕시코 - 트라케파케

멕시코 과달라하라, 예술의 도시 트라케파케

-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동 or 삼청동 느낌의 동네
- 예로부터 도기 및 유리 공예로 유명한 곳
- 예쁜 인테리어 소품점, 노점, 레스토랑 등 많음

https://blog.naver.com/solo_solo/221036767239

